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창의 융합형 기술 교육의 요람

2021 신입생 모집 ... 수시 1차 원서접수 13일까지
수시 6개 대학 제한 없고 수능 성적 없이도 정시 지원 가능
기술 교육의 50년 역사 ... 최근 7년 평균 취업률 86%



4차 산업에 맞추어 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도재운)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1차 원서접수는 오는 13일 밤 11시 59분까지 인터넷홈페이지(진학어플라이)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한, 폴리텍대학의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성적으로도 지원 가능, 미래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위한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입생 모집 전형부터 달라진 점은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이 기존에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에서 2021학년도 모집부터는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로 변경되었다.



도재운 학장

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분야로 광주시에서는 2020년 6월 AI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등 4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이 특히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가 광주시 신산업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인력 양성의 거점 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렴한 등록금, 장학, 복지로 학생이 행복한 대학
저렴한 등록금(약 240만 원 내외/1년)과 각종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여 재학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는 취업률이 높아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다시 찾는 대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생 1인당 장학금 약 156만 7000원(2019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인 1실 기숙사는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학생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써 '학생이 행복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잡인폴리텍'이라는 고유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학생의 인성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 창의융합기술센터 운영으로 융합 기술 교육 인프라 갖춰

지난해 10월 31일 개관한 광주캠퍼스의 창의융합기술센터(라닝팩토리)는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실습장이다.

센터 내에 실제 기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AI기반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새롭게 구현했으며, 가공 기계의 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학과 간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 교육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폴리텍대학은 3D프

린터, IoT 실습 등의 융합공동교과를 개설하고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을 교육 현장에 즉각 반영해 산업 현장의 트렌드 변화에 발 맞추는 것이다.

도재운 학장은 "한국폴리텍대학은 우리에게 닥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가까운 대학이자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스마트 시스템을 교내에 구축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AI·평생직업교육·창업 ... 동강대, 교육혁신 트렌드 보인다

2021학년도 21개 학과 신입생 1009명 선발
지역상생 등 트렌드 반영 7개 학부제 ... 야간학과 강화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2021학년도 21개 학과에서 신입생 1009명을 선발한다. 오는 13일 까지 진행되는 수시 1차 모집에는 829명, 11월 23-24일 7일 수시 2차 모집에서는 141명을 뽑는다.

동력으로 각각 받는 드론 운용 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동강대는 ▲공학 ▲간호보건 ▲인문사회 ▲예체능 등 4개 계열을 내년부터 7개 학부제로 운영한다. 학부는 ▲스마트시티 학부 ▲ICT융합학부 ▲간호학부 ▲보건 의료학부 ▲국방안전학부 ▲교육복지서비스 학부 ▲휴먼라이프학부로 나뉜다.

동강대는 내년 신입생 선발에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의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야간학과를 한층 강화했다. 건축토목경영학부를 건설환경과와 건축과로 분리하고 야간학과 22명과 23명을 각각 선발한다.

올해부터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사업'에 참여한 기계자동차과와 호텔조리영양학부도 야간을 신설한다. 2021년부터 'P-Tech 사업'에 참여 예정인 전기과도 야간 15명을 뽑는다. 또 임상병리학과는 '코로나 19'로 임상병리사 역할이 한층 강조됨에 따라 올해부터 야간으로 운영된 4년제 학사학위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동강대는 창의·융합형 교육에도 비중을 높여간다. 우선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에 광주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 이 사업을 통해 기계자동차과와 전기과, 드론과 등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 산업인 AI 기반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앞서 'P-Tech' 사업을 통해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약을 맺고 영광대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드론과를 개설한 동강대가 육군제31보병사단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다양한 드론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마산업단지에서 e-모빌리티 전문 인력을 교육 중이다. 동강대는 영광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운송 분야의 계약학과 2개 신설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동강대는 지난해 말 미래형 창의 융합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오픈했다. '메이커 스페이스'

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기술과 소프트웨어, 3D프린터,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 등 실험 생산 장비가 구비된 융합형 학습 공간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인 '창업 스타트업(Start-up)'과 '현장적용 서포트 업

(Support up)'을 연계한 교육 창의협력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동강대는 인재 육성과 더불어 광주 북구, 광주 동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기관 등과 협력하며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사회 모범 모델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